

“올림픽처럼”... 평창 패럴림픽 준비 ‘착착’

조직위, 준비상황 소개... 선수단 입국시 혼용 입출국 수송 방안 마련

2018 평창동계올림픽 뿐 아니라 동계패럴림픽 준비도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8일 강릉하키센터에서 패럴림픽 준비상황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올림픽이 끝난 뒤인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총 6개 종목, 80개 세부종목에 50여 개국 1500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해 역대 동계패럴림픽 중 최대 규모로 개최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하나의 인력이 두 개의 대회를 준비한다”는 Same Worker, Two Games 원칙에 따라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모든 분야별로 균형있게 준비 중이라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동등한 가치와 비중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패럴림픽의 경기장과 인프라는 올림픽과 동일한 시설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패럴림픽 고려 사항을 사전에 반영해 건립했다.

계획 단계부터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기준과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접근

성 국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적용했다. 대회기간 개최지역에 총 4044실(패럴림픽 패밀리 432실·클라이언트 그룹 3612실)을 배정한다.

IPC 요구를 반영해 이 중 81실을 객실 및 화장실 이동 공간 확보, 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한 객실로 마련한다.

패럴림픽 기간 동안 평창 선수촌 8개동, 11층, 440세대 2332베드를 공급한다.

이 중 182세대, 436베드를 휠체어 객실로 확보했다.

강릉에서 열리는 빙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우 충분한 수량의 접근 가능한 차량을 배치해 왕복 수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위는 패럴림픽 기간 중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44대와 휠체어 리프트 차량 186대 등 총 1741대의 차량을 운영한다.

선수단 입국시에도 교통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혼용 입출국 수송 방안’을 마련했다.

올림픽에서는 인천공항과 진부역을 오가는 KTX, 진부역과 평창 선수촌을 오가는 버스를 운영한다.

반면 패럴림픽 때에는 선수단이 입국한 후 휠체어 리프트 버스에 탑승해 선수촌으로 바로 이동하게 된다. 나머지는 KTX를 이용한다.

조직위는 대회 홍보 활동에서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 도심 거점 광고도 통합 운영 중이다.

또 엠블럼 런칭, G-1000 행사, 패럴림픽 데이 등 패럴림픽 특화 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조직위는 특화된 패럴림픽 교육 자료를 개발,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연계해 집중 교육을 추진 중이다.

개최도시 학생 20여 만명과 주민 3만명이 인식제고 교육을 받았다.

올림픽과 별도로 내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패럴림픽 성화 봉송이 이뤄진다.

조직위는 봉송구간이나 동선 마련에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패럴림픽 개·폐회식은 총감독을 비롯해 연출 등 6개 분야 9명의 부문별 감독단 선임을 완료했다.

조직위는 “장애인을 배려한 연출을 수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종목 및 마스크 등 반대를 형성화한 패럴림픽 기념주화와 우표는 오는 11월 런칭한다.

주화는 은화·황동화 각 1종씩 총 9만 5000장이, 우표는 6종 총 60만장 규모로 판매된다.

패럴림픽 입장권은 2010년 밴쿠버 대회, 2014년 소치 대회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올해 9월 공식 런칭할 예정이며 장애인 및 동반자 1명에 대해 50%의 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봉사자는 올림픽 뿐 아니라 패럴림픽에도 모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총 6400여 명(올림픽 1만6000여 명)을 선발했으며 패럴림픽 및 장애인에 대한 분야별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조직위는 개최도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 개최도시와 공동으로 음식점·숙박·관광시설 개선과 휠체어리프트 차량 보급을 시행 중이다.

여형구 사무총장은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평창올림픽의 완성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사는 사회로 발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근기자



배드민턴 여자복식 장애인·이소희 MBN 여성스포츠대상 3월 MVP 수상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장애인(조·김진서)·이소희(조·인천공항공사) 조가 2017 MBN 여성스포츠대상 3월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18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따르면 두 선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월간 MVP 시상식에 참석해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세계랭킹 5위인 장애인·이소희 조는 지난 달 영국 버밍엄에서 끝난 2017 전영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2위 카밀라 휘터 윌크리나 페데르센(덴마크) 조를 2-0(21-18 21-13)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118년 역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영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2년 남자복식 정재성·이용대 조 이후 5년 만이다.

3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장애인·이소희는 “연달아 값진 상을 받아 기쁘다. 올해 첫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이자 배드민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거둔 우승이어서 더욱 값지다.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했는데, 올해는 더욱 노력해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스포츠대상 심사위원장인 최윤희 한국여성스포츠회장은 “두 선수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한 배드민턴 여자복식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봄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2년 제정된 MBN 여성스포츠대상은 여성 스포츠 활성화와 여성 스포츠인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근기자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 경기대회 20일 개최

26일까지 20개국 1700여명 참가... 10억원 이상 지역경제 창출 기대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내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춘향골 체육공원 롤러 경기장 및 남원중체육관, 서남대 체육관에서 스피드 트랙 및 로드 슬러럼, 인라인하키 4개 종목에 걸쳐 2017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 경기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국내 최고의 국제 롤러 대회로서 10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대회는 주최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총 20개국 1,7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해마다 참가국 및 참가선수들의 증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롤러 대회 및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해의 참가국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등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증가로 국제롤러경기대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롤러스포츠 국제종합대회는

명성에 맞게 스피드(트랙, 로드) 뿐만 아니라 인라인하키와 예술을 접목한 슬러럼 종목에 국내외를 대표하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롤러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4월 22일 오후 20시 개최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김영순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을 비롯한 귀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춘향골체육관에서 슬러럼 및 태권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최식이 열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다짐할 예정이다.

남원시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대회 분위기 조성과 롤러 주변 확대를 위한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홈페이지에 인터넷 생중계 실시로 롤러의 진정한 묘미와 엄청난 스피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 대회를 통해 약 1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기자



내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춘향골 체육공원 롤러경기장 및 남원중체육관, 서남대 체육관에서 2017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 경기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춘향애인 남원 시니어 배구팀, 전국 배구대회 우승

춘향애인 남원 시니어 배구팀(회장 양완철)이 최근 진안에서 열린 2017 국회의원배 시니어·실버 전국 남·여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원시 배구협회 소속 50세 이상의 선수들로 구성된 30여명의 회원들은 남원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구성,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창단 첫해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니어·실버팀 47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춘향애인 팀은 대회우승(상금 50만원)과 함께 감독상(고홍석), 최우수수상(정양환)까지 거머쥐며 남원 배구의 위상과 지역이미지 홍보에 북돋아 한 몫을 담당하였다.

춘향애인 시니어 배구팀은 매주 화·목요일 배구전문구장인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전문 코치의 지도하에 체력훈련과 포지션별 기술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 최고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고홍석 시니어 배구팀 감독은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으로 매년 2-3개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회원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지역농산물 브랜드 홍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남원=유영철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